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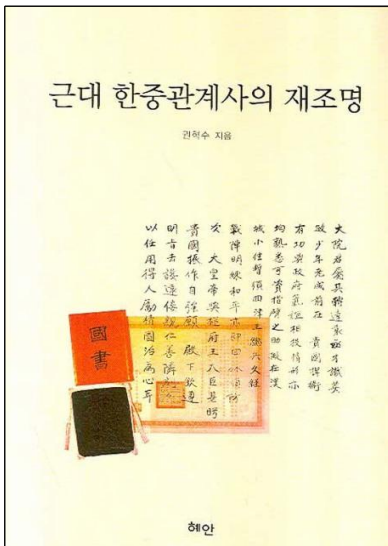
書 評

# 상생을 위한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해안, 2007)

구 선 회\*

## I. 근대 한중관계의 갈등 키워드 : 조공과 조약



현대 한중관계는 근대 한중관계의 끝점이  
고 미래 한중관계의 시작점이다. 이런 역사인  
식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권혁수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해안, 2007)이다. 저자  
는 상호이해의 측면에서 한중 두 나라는 적  
어도 19세기 말부터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  
러냈다고 보고, 이른바 ‘동북공정’ 문제 역시  
그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로 포  
괄한 다음 지금이야말로 보다 바람직한 상호  
이해 및 상호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 역사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의 증대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가 한중관계 연  
구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자는 근대 한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국근대대외관계사 전공(sunny@mest.go.kr).

중관계사를 재조명 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밝힌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을 다룬 글을 묶어 낸 것이다. 그러나 각각 독립적인 주제로 발표된 글을 모아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실린 14편의 글이 모두 근대 한중관계의 전환과정을 다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 한 권으로도 근대 한중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근대 한중관계에 관한 연구 대상이 다양하고, 그럼으로써 역사연구자로서 저자의 근면함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근대 한중관계는 서세동점이라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두 나라의 조공관계를 수정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중 양국에 주어진 전통적 조공관계를 어떻게 개편해서 달라진 국제관계에 조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근대 한중 관계를 길항 관계로 만들었다. 한중 양국의 길항 관계는 전통적 조공관계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1866년 한국과 프랑스가 충돌한 병인양요가 발발했을 당시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근대 한중관계의 서막을 찾아낸다.

저자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인 조공관계는 이미 그 체제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서양의 충격’에 맞설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을 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 역시 더 이상 서양세력의 조선 진출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공체제 속에서 중국의 커다란 그림자 뒤에 ‘은둔’해 있던 한국은 부득불 서양열강의 침략위협 앞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병인양요가 발발했다는 것이다.

병인양요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에 대해 저자는 한국과의 명분상 조공관계만 고집하고 한국과 서양 열강 사이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수적 그리고 이기적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한국문제로 인한 서양 열강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두려워하는 중국정부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고, 나아가서 근대적 조약관계의 원칙과 관례를 주장하고 있는 서양 열강 세력이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관계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해 가면서 저들의 한국침략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조공관계는 1866년의 병인양요에 이어 1871년 신미양요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함외교에 의해 다시한번 무력화되었다. 이로써 ‘서세동점’의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조공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변화가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저자는 근대 한중관계를 전통적 조공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이라 규정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흔히 말해지는 전통적 조공관계에서 근대적 조약관계로의 전이과정인데, 특히 한중관계에서 저자는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라고 말한다.

저자가 언급한 대로 근대 한중관계는 동아시아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이라는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의 ‘조공체제’ 안에서 조공과 책봉을 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문호개방 이후 한국은 중국과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아래서 맺어진 조공관계가 있었고, 그 외 다른 나라와는 근대 만국공법 아래에서 조약관계를 맺게 되는 이중적인 국제질서에 직면했다. 이를 두고 한국의 개화사상가 유길준은 ‘양절체제’(dual system)로 명명했다. 조공과 조약 관계가 동시에 관철되는 국제질서에 휩싸인 한국이 나아갈 길은 대외관계에서 만국공법체제를 준수하면서 국가독립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정부관료나 한국정부에 의한 갑신정변을 비롯한 일련의 반청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근대 조공관계에 가탁해 만국공법의 ‘속국’에 준하는 관계로 가져가려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개항 이후 청일전쟁에 이르는 시기 한중관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양국이 각각 조공과 조약 관계를 서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두 나라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 한중관계는 ‘조공’과 ‘조약’ 관계라는 갈등 요소를 염두에 두고 연구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문제를 비교적 가볍게 처리하며 근대 한중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저자는 1884년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로 중국에 파견된 남정철을 통한 한국의 대중국외교를 평가하는 중에 당시 남정철의 외교는 어디까지나 이른바 ‘양절체제’의 기본틀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서 그 기본틀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조공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정철이 중강무역의 세금인하, 인삼관세 인하 및 중국상인의 서울 개진, 한중 국경선의 재답사 등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일일이 제기하며 이홍장에게 협상을 요구

한 외교 노력은 처음부터 상당한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저자의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나, 당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양절체제’를 불식하고자 한 조선정부의 반청운동도 고려한 보다 다각적인 서술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정치 행위에서 외교란 드러난 결론으로 평가되지만, 관계사 연구에서는 외교의 배경과 숨은 갈등 요인을 도외시하고는 피상적 서술에 그치기 쉽다.

## II. 한중 상호 이해의 실제

저자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상호 이해 증대를 김옥균의 중국인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에게 중국과의 조공관계 청산 및 한국으로부터 중국 세력의 구축은 한국의 개화와 독립에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전제적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반중국 독립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옥균의 중국인식이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저자는 1886년 7월 7일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김옥균이 이홍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김옥균은 당시 중국의 대한국정책을 책임지고 있었던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서신을 작성했다. 이 서신은 김옥균이 이홍장은 물론 중국정부관료에게 보낸 유일한 서신으로서 그의 중국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김옥균은 이 서신에서 한국에 대한 이홍장과 중국정부의 압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한중 양국이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임을 근거로 선린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신이 갑신정변 이전부터 이홍장과 직접 국내외 정세를 토론하고 싶었다면서 조선의 영구중립화 구상에 대한 이홍장과 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김옥균이 이홍장과 직접 회담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김옥균의 기왕의 활동을 볼 때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선중립화 구상 및 그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조공체제에서 근대적 조약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

한 바람에서 나온 것이었다. 김옥균의 구상은 김옥균이 이홍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기 약 7개월 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나 공개되지 않았던 유길준의 ‘중립론’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김옥균의 중립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김옥균의 중립론 구상에서 제기된 중국의 역할 및 중국과의 연대문제는 종전의 반중국 노선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절충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훨씬 더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이후 김옥균의 ‘三和主義’로 이어지는데, 갑신정변의 실패와 일본망명을 거치면서 김옥균의 중국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삼화주의란 김옥균이 말년에 주장했던 것으로 한중일 3국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구미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고 아시아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자는 삼화주의 사상이 김옥균의 중국인식에서 줄곧 내포되어 왔던 아시아연합사상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파악한다. 김옥균이 1894년 이홍장을 만나기 위해 上海 행을 결심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도 삼화주의 실현에 있었다. 김옥균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3국 연합을 주장하는 삼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력자인 이홍장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재기는 물론 한국의 자주독립과 아시아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구상을 나름대로 갖고 중국행을 결심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김옥균의 대중국인식 및 삼화주의 사상은 냉엄한 국제적 현실 속에서 조국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김옥균은 한중일 정부의 협력 하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뜻을 펴지 못했다. 저자는 한중일 3국의 화합과 협력의 전통 만들기가 김옥균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음을 못내 아쉬워한다.

한편 저자는 잘못된 상대방 읽기의 예도 제시하고 있는데, 黃炎培가 저술한 『朝鮮』(上海: 商務印書館, 1929)에 나타난 한국 인식이다. 황염배는 1917년 5월 상해에서 중국 최초의 근대 직업교육기관인 중화직업교육사를 창설하면서 일약 중국의 유명한 사회교육가로 성장하였고, 활발한 정치 사회활동을 통해 국민당정권 시절에 줄곧 재야 유력인사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청말을 거쳐 신해혁명,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두루 경험한 교육가로서 정치가로서 중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황염배는 한국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두 번째 여행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역사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소개한 『조선』을 집

필했다. 그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련도서관에서 한국과 滿蒙에 관한 서적을 검색하고 열람하면서 한국 연구를 시작했지만, 일제의 한국식민통치기관 및 관련 자료에 의존했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인용 자료에 치우침이 있어 객관적인 역사관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이었던 李始榮은 청말부터 한국에 관한 중국인의 저서가 6~7종이 있지만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편견이 심해 볼만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염배의 『조선』은 공력을 많이 들였지만 오류가 많고 일본인의 저작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깊이 연구하지 않았으며 일본인을 대신해 일본의 정책을 선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조선』은 1920년대 후반의 식민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상황을 거의 빠짐없이 망라한 것으로서 근대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한국개설서였다. 황염배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한국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일본의 대륙 침략이었다. 그는 일본의 대륙침략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한국의 정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일본이 조선과 조선인에게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조선이 자신의 중요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황염배의 저술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일제의 의도적인 왜곡된 한국에 대한 안내와 소개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도 비롯되었다. 중국측 역사기록에 의한 기자조선, 위만조선, 및 한사군 관련사실에 근거하여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역사를 이른바 중국 ‘한족’에 의한 ‘개화시대’로 단정했다. 일제 식민당국에 의해 조작된 식민사관을 그대로 본받아 이른바 일본 신공황 후 등에 의한 ‘남선경영’ 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조의 역사를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빚어진 이른바 ‘家難’ 및 당쟁과 외환이라는 세 개의 주제로 개괄하여 조선조 500년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기술했다. 그가 참고한 주요 역사서는 주로 일제 어용학자들의 연구성과였다. 연대기 형태의 도표로 ‘조선실국경과’를 기술하면서 일본공사 미우라 주도하의 민비시해를 그저 ‘亂兵殺閔妃’라고 하여 폭동을 일으킨 한국 군인에 의해 민비가 살해된 것처럼 기록했다. 1908년 의병항쟁을 ‘폭도 봉기’라고 하여 완전히 일제당국의 입장 대변한 서술을 하기도 했다.

저자에 의하면, 근대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한국개설서인 황염배의 『조선』이 한

국 및 한국인에 대한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찬 것은 당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중국 주류사회의 엄청난 몰이해와 무지 심지어 그릇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옥균의 대중국인식을 포함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는 한중관계사의 심층적 연구에는 물론이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중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 III. 자료 발굴에 의한 한중관계사 연구의 외연 확대

역사 연구는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다. 풍부한 자료는 역사 연구의 폭을 넓혀 준다.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한 자료 찾기는 역사를 연구하는 자의 덕목이다. 저자는 ‘吳淸卿獻策論’ ‘北洋衙門談叻’ ‘北洋大臣衙門筆談’ 등의 자료 발굴을 통해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吳淸卿獻策論’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국정부의 대표로 한국에 파견되어 갑신정변 문제를 조사처리한 吳大澂이 중국정부의 비밀지시에 따라 고종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였고, 청경이란 바로 오대징의 字였다. 저자에 의하면, ‘吳淸卿獻策論’은 갑신정변을 계기로 적극적인 간섭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대한국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료이고, 특히 이 문서가 중국정부 및 한국정부의 관련문헌에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내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고종에게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갑신정변 이후 내정문제를 비롯한 한국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려는 중국정부의 대한국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양무자강운동이나 한국정부가 이미 실시해 온 개화정책에 비해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귀중본으로서 갑신정변을 전후한 한국근대사 및 한중관계사 연구의 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문헌사료라고 할 수 있다.

‘北洋衙門談叻’의 내용은 초대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이 천진에 도착한 뒤 이홍장 및 그 주변인물들과 나눈 필담기록이다. 북양통상대신아문에서 이홍장과 만나 자신의 업무내용 및 당시 한중관계의 여러 현안에 관한 필담기록 및 이홍

장의 막료출신으로 당시 천진해관도 대리였던 盛宣懷와의 필담기록, 그리고 내방한 만주인 額勒精額과의 필담기록 등 3건이 포함되어 있다.

‘北洋大臣衙門筆談’은 남정철과 이홍장의 1차 필담 내용이 12장을 차지하고 나머지 6장은 남정철과 천진해관도 周馥과의 2차 필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필담내용은 1882년 임오군변 당시 중국정부에 의해 납치되어 억류 생활을 하던 대원군의 경제사정 및 그에 대한 한국정부 및 중국정부의 경제적 지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로 주목된다.

한국외교사 연구에서 지금까지 1887년 7월 주일변리대신 閔泳駿의 파견을 근대 한국 최초의 해외상주 외교대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상기 필담자료 및 그와 관련된 역사 사실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1884년 4월에 천진으로 부임한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이 근대 한국 최초의 해외상주 외교통상대표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필자가 서울대 규장각 소장문서에서 찾아 본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관련사료를 보면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이문을 근대 한국 최초의 해외상주 외교대표기관(‘本國出使常駐之始’)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외교사의 경우 ‘이문충공전서’ 및 ‘청계중일한관계사료’ 등에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의 활동과 관련한 단편적인 사료만 남아있을 뿐 중국 상주 외국대표관련 기록에는 아예 수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이 문제는 근대 한국과 중국 외교사 및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 자료와 함께 저자는 초대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근대 한중관계의 특징인 ‘양절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관계의 근대적 전환은 전통적 조공체제와 근대적 조약체제가 상당기간 공존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본 및 구미 각국과 평등한 수호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청국과 종래의 화이적 사대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의 독특한 이중적 국제질서”를 선구적 개화지식인이자 정치가였던 유길준은 19세기 말 당시에 이미 ‘양절체제’ 개념으로 명백하게 풀이했다.

유길준에 의해 제기된 ‘양절체제론’은 오늘날 19세기 말 한국의 대외관계사 연구에서도 여전히 적절한 학문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양절체제론’은 무엇보다도 19세기 말 한중관계사 연구에 적합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19세



기 말 당시 중국은 구미열강 및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근대적 조약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대한 전통적 조공관계를 계속 고집해 오는 이중적 대외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현상을 저자는 이미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로 설명해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에 의하면, 한중관계사 시각에서 볼 때 19세기 말 한국의 ‘양절체제’적 대외관계와 중국의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의 대외관계는 말 그대로 상호 표리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관계질서의 근대적 전환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저자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학문적 조명을 받는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이문 관련 사실 특히 초대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 남정철의 활동 사실은 바로 ‘양절체제’라는 이중적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전개된 19세기 말 한국의 대중국외교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또한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의 북양통상대신을 비롯한 중국 지방관원들과 한중 두 나라의 외교 및 근대적 통상업무 그리고 한국정부 관원과 ‘商民’의 중국출입국 등 영사업무를 협의 처리하고, 아울러 공관에 국기를 게양하고 천진 주재 각국 이교대표들과 직접 교섭하는 등 사실상 당시 한국의 중국 주재 최고 외교통상대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정부도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를 한국의 ‘領事’로 간주하면서 그 성격과 업무 내용 및 임기 등에 관한 기본제도를 모두 전통적 조공체제가 아닌 근대적 조약체제의 외교원칙과 관행에 따라 제정하였다. 이처럼 전통적 조공관계를 유지하는 기본틀 속에서 근대적 조약관계의 원칙과 관례를 부분적으로 그리고 약간 변형된 형태로 수용하고 있는 외교형태가 바로 당시 조선왕조 대중국외교의 ‘양절체제’적 실상이었다고 한다. 요컨대 청일전쟁 직전까지 한국의 대중국외교는 사실상 양절체제의 이중적 국제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저자가 집중적으로 고찰한 천진주차독리통상사무는 바로 그러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 대중국외교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중국주재 외교통상공관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조공사절이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까지 해마다 어김없이 중국에 파견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주차천진독리통상사무의 활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된 19세기 말 한국의 양절체제적 대중국외교는 말 그대로 전통적 조공체

제에서 근대적 조약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주었을 뿐 그 자체가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진주 차독리통상사무 및 보다 늦게 설립된 상해주차찰리통상사무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말 한국의 양절체제적 대외관계사의 연구는 물론 한중 양국관계사 나아가서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례로서 향후 보다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의 위와 같은 생각에 하나 덧붙이자면 당시 양절체제의 고착은 한국도 중국도 바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양절체제를 벗어던지고 만국공법하의 독립 자주국가를 지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절체제 보다는 한국을 근대 식민지로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러나 청일전쟁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 IV.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지향점

저자는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발전을 위해 두 나라 학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소가 속속 설립되고,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도 자주 개최되고 있지만 그러한 가시적인 외적 성장 못지 않게 두 나라 학계의 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상호 소개와 번역 및 평론 작업 역시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를 포함한 중국내 한국학 연구의 진정한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면서 중국학자의 『朝天錄』과 『燕行錄』 관련 연구서에 대한 서평을 했다.

『朝天錄』과 『燕行錄』은 明代와 清代의 한국 조공사행 관련 기록이다. 『조천록』을 보면, 명나라 前期에 중국을 방문한 조선조 사신들은 전통적인 ‘事大觀’에 구속되어 오로지 도시 성곽 및 궁궐의 웅대하고 장려함과 군사역량의 강대함 그리고 인물과 재산의 풍부함 등 명나라의 좋은 면만 부각했고, 그래서 조공사행과 관련된 기행 성격의 시문만 남겼다. 따라서 명나라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기록이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반면에 『연행록』의 경우 청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지리, 물산, 문화, 풍속 습관 및 대외관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세하고

풍부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청나라의 역사문헌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왜곡 등 잘못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조천록』과 『연행록』은 중국 학계의 명청시대 역사 연구에 새로운 사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4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한중관계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특히 명청교체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대중국인식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그러한 대중국인식의 변화에서 나타난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저자는 이같은 서평을 통해 그동안의 한중관계사 연구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을 피력하고 싶어 한다.

한국학계의 경우,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관련한 전문연구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학계의 경우, 상호인식의 시각에서 대외관계사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겨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적 중요성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은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상호인식의 차이 특히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한중관계사 연구의 심화와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